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결과

- 3분기 공적채권 발행은 67조원 수준 정상적으로 진행(2분기대비 3조원 감소)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금) 15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주재: 황순관 국고실장). 회의에서는 금융위·금감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주요 정부보증채·공사채 발행기관들이 참석*하여 2분기 발행 실적을 점검하고 3분기 시장여건, 발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기관) 재경부, 금융위, 금감원, 산은, 수은, 기은, 한전, 주금공, LH, 장학재단 등

정부 및 발행기관은 지난 2차 회의(4.22일)에서 2분기 발행량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실적 점검 결과 5~6월 발행여건이 예상대비 악화되며 발행량은 다소 감소하였다. 상반기 국고채는 연초 가이드라인(55~60%)의 하단 수준인 124.1조원(55.5%) 발행되었다. 국고채 제외 공적채권의 경우 2분기에 연초 계획대비 6조원 증가한 70조원이 발행되었으며, 상반기 전체로는 연초 계획대비 1조원 감소(연초 계획대비 1분기 △7조원, 2분기 +6조원)하였다.

국고채를 제외한 주요 공적채권의 3분기 발행은 정책수요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대비 4조원 증가한 67조원(7개 기관 기준)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2분기 발행실적대비로는 3조원 감소할 예정이다. 참석기관들은 최근 금리가 높은 수준이나, 7월 들어 채권수요가 다소 회복되는 등 발행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및 발행기관은 3분기에는 예정된 국고채 및 주요 공적채권 발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기관들은 채권시장 수급 등을 고려하여 발행 일정과 만기를 분산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외화채 발행, 직접차입 등을 통해 채권발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발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발행량, 발행시기 등을 조정해나가기로 하였다.

황 국고실장은 “하반기에도 채권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재한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기관간 공조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통해 발행량 및 발행 시기를 협의·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발행기관은 3분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대응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고실 국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희정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김선익 (ksi1206@korea.kr)

